

악연, 이란 너 잘 만났다

아시안컵 8강에서만 4차례 대결 1승1무2패... 이번엔 확실히 꺾어주마

‘이란 넘어 51년만의 아시안컵 제패에 나선다.’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태극전사들이 23일 오전 1시15분 카타르 스포츠클럽 스타디움에서 난적 이란과 8강전을 치른다. 한국은 18일 카타르 도하의 알 가라파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인도와 대회 C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2골을 터트린 지동원(전남)과 1골 2도움의 활약을 펼친 구자철(제주)을 비롯해 A매치 데뷔골을 맞은 손흥민의 연속골이 이어지며 4-1로 완승했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2승1무(승점 7·골득실+4)로 바레인 1-0으로 꺾은 호주(승점 7·골득실+5)와 동률을 이뤘지만 골 득실에서 뒤지며 조 2위로 조별리그를 마쳤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일찌감치 D조 1위를 확정된 이란과 격돌하게 됐다. 8강에서 맞붙게 된 이란은 역대 아시안컵에서 세 차례(1968년, 1972년, 1976년)나 정상에 올랐던 중동의 축구 강호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도 65위로 호주(26위), 일본(29위), 한국(39위)에 이어 아시아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뿐 아니라 월드컵 본선에도 세 차례(1978, 1998, 2006년)나 출전했을 정도로 탄탄한 전력을 자랑하고 있다. 한국은 이란과 역대전적에서 8승7무8패로 팽팽한 접전을 치러오다가 지난해 9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친선전에서 패하며 8승7무9패로 균형이 무

너졌다. 특히 2006년 9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2007 아시안컵 예선에서 이란과 1-1로 비겼던 것을 신호탄으로 한국은 최근 이란과 치른 6경기에서 2무4패(승부차기 승리는 무승부)로 밀리고 있다. 더불어 조광래(57) 감독이 대표팀 사령탑을 맡고 나서 치른 총 6차례 A매치 가운데 유일하게 패배의 쓴맛을 안겨준 것도 이란이었다. 아시안컵에서도 한국은 이란과 악연을 맺었다. 아시안컵 역대 전적을 따져도 2승2무4패(12골17실)로 열세일 뿐 아니라 8강에서만 네 차례나 만나 1승1무2패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조광래 감독은 인도와의 경기가 끝난 후 ‘이란을 못 이길 것 같으면 어떻게 우승하겠다고 왔겠느냐. 빨리 집에 가는 게 낫다’며 ‘오늘처럼 좋은 경기 내용을 보인다면 이란과 경기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조 감독은 또 ‘이란을 꺾어려고 했으면 인도와의 경기에서 더 많은 골을 넣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란을 이기지 못할 전력이라면 우승할 수 없다는 점을 선수들에게 강조했다’며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A매치의 패배를 다시 이란한테 되갚아줄 각오를 하고 있다. 8강에 꼭 이길 수 있는 전력으로 준비하기 위해 이란전에서 (경고가 하나씩 있는) 이정수, 차두리, 기성용을 후반에 기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조별리그 마친 한국 기록 풍성

유효슛 32개... 日 21개·호주18개보다 앞서

아시안컵 8강 진출로 정상 탈환에 한 걸음 다가선 태극전사들이 조별리그에서 풍성한 기록을 만들었다. 한국은 조별리그 3경기를 치르면서 2승1무(승점 7·골득실+4)로 호주(승점 7·골득실+5)에 골 득실차로 조 1위를 내렸지만 기록에서만큼은 호주를 능가하면서 우승 후보다운 자력을 보여줬다. <구자철 득점-도움 '1위 행진'>=한국의 최고 스타로 떠오른 선수는 해외파가 아닌 ‘토종 미드필더’ 구자철이다.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조광래 감독의 구상에 따라 치른 스트라이커 겸 공격형 미드필더로 변신한 구자철은 뛰어난 골 감각을 앞세워 조별리그 3경기에서 4골을 터트려 바레인의 이스마엘 압둘라티프와 득점 공동 1위에 올랐다. 득점 공동 선두인 압둘라티프가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만큼 구자철은 일본의 오카자키 신지(3골)와 득점왕 경쟁을 펼치게 됐다. 역대 아시안컵에서 한국인 출신 득점왕에는 조윤욱, 최순호, 이태호(1988년·3골), 이동국 등 4명이 있었다. 구자철은 도움 부문에서도 공동 1위에 이름을 올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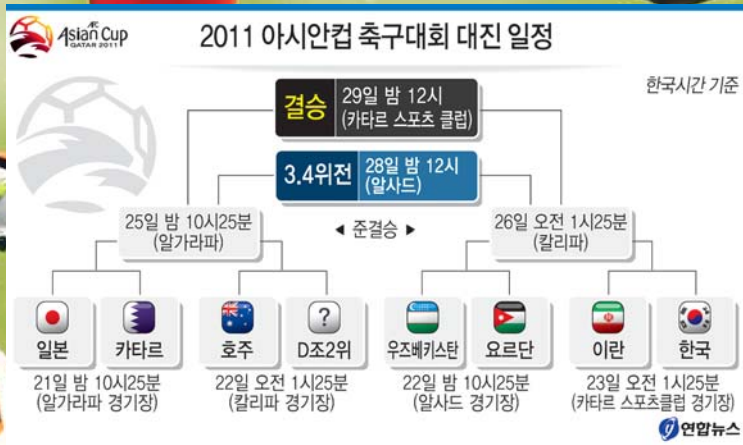
다. 구자철은 인도와 조별리그 3차전에서 지동원(전남)과 손흥민(함부르크)에게 ‘킬러 패스’를 내주며 2도움을 올려 팀 동료인 지동원(2도움) 등과 함께 도움 공동 1위에 올라섰다. 더불어 구자철은 3경기 동안 9개의 유효슛을 시도해 지동원(7개)과 함께 유효슛 부문 1, 2위를 달리고 있다. <‘정교해진 한국’- 유효슛 부문 선두=한국은 조별리그를 치르면서 7골을 뽑아 일본(8골)에 이어 팀 득점 2위에 올라섰다. 하지만 유효슛은 총 32개를 시도하면서 일본(21개)과 바레인(19개), 호주(18개)를 훌쩍 앞서고 있다. 일본에 다득점 선수를 내주고 있지만 선수들의 슛 정확성은 경쟁팀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유효슛뿐 아니라 전체 슛 시도 횟수도 79회를 기록해 호주(60회)를 큰 차이로 앞서며 1위를 지키고 있다. 또 한국은 3경기 동안 옐로카드 3개를 받으면서 공동 12위에 올랐고, 전체 반칙 개수에서도 42개(경기당 14개)에 그쳐 13위를 차지해 신사적인 경기를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 광주FC 강진 전훈련캠프 가보니 개막전 ‘V축포’ 쏜다 하루 15시간 강행군

“아직은 맘에 안 든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왔고, 더 강해지고 있다.” 광주 FC가 지난 8일부터 강진에 전지훈련 캠프를 차리고 2011 K리그를 준비하고 있다. 강진에서 훈련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최만희 감독은 18일 오전 수원대와의 연습경기에서 앞서 선수단에 대해 ‘아직은 맘에 안 든다’며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아직은 고른 전력과 움직임이 어렵다는 얘기가. 신생팀으로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이 대부분인데다 손발을 맞춘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최 감독이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부상병이 발생하지 않았고, 연습경기에서 패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최 감독이 꼽는 성과다. 최 감독은 ‘탈장 수술을 했던 김은선의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고, 부상 없이 모두 최선을 다해주고 있어서 훈련은 만족스럽다. 전지훈련 전·후 체력테스트를 했는데 체력적으로도 많이 올라왔다. 무엇보다 아직 연습경기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다는 것이 의미 있다. 비록 대학팀들과의 경기지만 강팀이든 약팀이든 승리를 통해 우리의 색을 내고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광주는 18일 수원대와 고려대와의 연습경기에서도 1승1무를 기록했다. 수원대와의 경기에서는 김호남과 미셀이 각각 골맛을 봤고 박연이 2도움을 올렸다. 브라질 출신의 미셀은 광

주 입단을 위해 강진을 찾아 입단 테스트를 받고 있는 선수다. 훈련량이 부족했던 미셀은 이날 모처럼 연습경기에서 나서 전력을 평가 받았다. 고려대와의 경기에서는 주장 박기동이 연습경기 첫 득점에 성공했다. 박기동은 0-1로 뒤지고 있던 전반 45분 김동섭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튀어나오자 190cm의 큰 키를 이용해 헤딩골로 연결시켰다. 고려대와의 경기에서는 주장 박기동이 연습경기 첫 득점에 성공했다. 박기동은 0-1로 뒤지고 있던 전반 45분 김동섭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튀어나오자 190cm의 큰 키를 이용해 헤딩골로 연결시켰다. 최 감독은 ‘대구가 약체팀으로 폼 없지만 부담감은 많다. 더 강한 팀과 자신있게 붙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영호남 화합의 무대이자 경쟁의 장으로 생각하고 경기를 풀어나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24일 강진 캠프를 마무리하는 광주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중국 톈밍과 상하이에서 2차 전지훈련을 갖는다. /강진=김여울기자 wool@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i@



고교야구 주말리그 3·6월 개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고교야구 주말리그가 3월과 6월에 열린다. 대한야구협회는 19일 2011년도 제 1차 이사회를 열고 고교야구 주말리그 일정과 예산 등을 의결했다. 공부는 운동선수를 육성하고자 축구에 이어 야구도 올해부터 주말리그를 전격 실시한다. 협회는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6~7팀씩 배정했다. 서울권과 경상권이 각각 2개 조를 운영하고 중부권, 전라권, 경기권, 강원·인천권은 1개조로 이뤄졌다. 각 고교 팀들은 같은 권역 또는 같은 조에 속한 팀끼리 3월26일부터 4월24일까지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지방 구장에서 전반기 리그를 치른다. 6월11일부터 7월25일까지 열릴 후반기리그에서는 다른 권역에 속한 팀과 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

조가 2개로 나뉜 서울권과 경상권은 자체적으로 다른 조와 경기를 벌이고 중부권은 전라권과 경기권은 강원·인천권과 일정을 벌인다. 주말리그가 시행되면서 전국 규모 고교야구대회는 황금사자기(5월), 청룡기(7월), 대통령배(8월) 등 3개로 줄었다. 황금사자기와 청룡기 대회는 주말리그 왕중왕전을 겸해 열린다. 협회는 올해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66%가 증가한 49억1천500만원의 결했다. 주말리그 예산이 20억4천만 원이 포함돼 많이 늘었다. 또 2012년부터 고교야구에서 유급한 선수는 유급일로부터 1년 후부터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고 고교야구 최고 타자에게 주는 이영민 타격상에도 주말리그 성적을 반영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홍스페이스 SPACE 상무점 오픈

모든식탁과 좌탁은 상판 밑 좌우에 있는 50cm 보조날개 2개로 8인용 10인용으로 쉽게 사용가능 합니다. (한국독점수입)

상무점 서구 화정동 307-1 화정동사거리 (구, 안기부 공항간 대로변 400평) ☎ 062-382-0022

문화전당점 동구 장동 58-15 문화전당 장동로타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 062-226-7567

(주) 홍스페이스는 1990년부터 인체에 무해한 100% 이태리 친환경 엔틱,클래식가구를 직수입 도,소매 하고 있으며 국산가구가격으로 공급하고자 백화점 중심영역에서 직수입 직영점판매를 하고 있습니다.